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년 기리는 평화의 목소리

안중근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내일 5·18민주광장서 '평화음악회'
'독립군 애국가'·'임을 위한...' 등

"북녘 기러기 소리에 잠을 깨니 홀로 달 밝은 누대 위에 있었다/ 언제고 고국을 생각지 않으랴 삼천리가 또 아름답다"(안중근 의사 '육중 시' 일부)

안중근 의사가 위순 감옥에서 지은 육중 시 일부다. 죽음을 앞둔 공포의 순간마저, 조국의 명운을 염려하던 그의 의기(意氣)는 먹먹한 울림을 준다. 안 의사가 목숨 바쳐 꿈꿨던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그의 유해는 아직까지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하얼빈 기념관의 시계마저도 그가 이등박문을 사살했던 9시 30분에 멈춰 있다.

올해로 순국 114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광주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가 제2회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년 평화음악회'를 오는 23일 오후 4시 5·18민주광장에서 펼친다.

그동안의 추모제는 대부분 국내·외 역사관을 비롯해 박물관 등 학술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핵심 공간인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 말 상무시민공원 안중근 의사 동상 일원에서 첫선을 보인 '안중근의사 의거 114주년 기념식 및 평화음악회'에 이은 두 번째 공연이다. 호남의열단,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를 비롯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협력하면서 각종 역사 단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식전 공연으로 팬플루티스트 박권배가 '날개', '바람의 노래'를 들려준다. 길이가 다른 관을 연결한 목관악기 팬플루트가 독특한 음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성채복춤보존회 내드림이 '길놀이', '진도북춤' 공연을 펼친다.

전 출연진이 '독립군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 시간도 있다. 독립운동을 펼칠 당시의 의분 등이 담겨 있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복 하모니시스트는 '바람', '부용산'을, 섹소포니스트 김재성은 '아베마리아'와 '꽃밭에서'로 관객들을 만난다. 테너 장호영은 '장부가', 서희선은 국악 공연 '한오백년', '아리랑 연곡'을 펼



지난해 상무시민공원 안중근의사 동상 일원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의거 114주년 기념식 및 평화음악회' 장면. 왼쪽부터 테너 장호영과 소프라노 윤혜진. <광주일보 제공>



장흥 지역민들이 지난 1955년 10월 해동사를 건립해 안중근 의사 위패를 봉안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칠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영웅' OST 중 '내 아들 도마'는 윤혜진 성악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작중 조마리아 역의 나문의 배우가 아들을 떠올리며 통곡하는 노래다. 이 밖에도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고 낭독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주하주와 장호영이 들려주는 통기타 레퍼토리 '광야에서', '진달래', '향수' 등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끝으로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등으로 안중근 의사 정신을 '광주 정

신'과 접맥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김진환 광주전남지부장은 "안중근 의사께서 이등박문을 현장에서 적살하고 체포될 당시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했던 일이나 위순 감옥 재판 중 일본인의 죄목을 조목조목 공개했던 일화는 유명하다"며 "순국 114주년을 추모하는 이번 '평화음악회'가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온고지신' '일신월이' 토요일에 창극 한판

광주시립창극단 토요일상설공연, 23·30일 광주공연마루

광주시립창극단(이하 창극단)이 연이은 토요일 상설공연을 통해 광주 시민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 주제는 '온고지신(溫故知新)'과 '일신월이(日新月異)'로 각각 오는 23일, 30일 광주공연마루에서 오후 5시에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이 선보이는 광주상설공연은 광주시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가 함께하는 무대로 클래식, 발레, 창극,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장르를 볼 수 있는 자리다.

23일 '온고지신' 무대에서는 기품 있는 선비의 내면세계를 추사위로 형상화한 '한량무'로 막을 연다. 박근태 등이 출연하며 구유에 박무성, 이어 조의 변화와 울림, 작은 박을 섬세하게 드러내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살린 '서용석류 대금산조'도 들을 수 있다. 대금에 박정인.

단막창극 '화초장'은 눈보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치고 아우 흥보에 집에 찾아가 '화초장' 하나를 얻어 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남도 민요 '봄노래'는 정선희 등이, '판굿과 소고·장고무'는 정숙희 등이 들려준다.

30일 예정돼 있는 '일신월이'는 '나날이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담아, 창극단의 고도의 기량을 가-무-악으로 형상화하는 공연이다. 한국의 전통



단막극 '화초장'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무용으로 즉흥성이 돋보이는 '교방무', 민속기악 독주곡 '지영희류 해금산조'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단막창극 '십장가'는 춘향 역에 이은비, 변사또 역에 장영한 등이 출연한다. 춘향가 판소리 중 신관 사또로 부임한 변사또의 수정을 거부하고 옥에 갇힌 춘향이 집장사령에게 매질을 당하는 내용.

이외에도 이지선, 방윤수 등이 부르는 남도민요 '사철가', 사물놀이 '판굿과 버구춤' 등 연희놀이도 만날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폴리 둘레길 걸으며 폴리와 친해지다

'광주폴리 랑도네' 4월부터 30여 회

광주폴리가 선을 보인 지 10여 년이 됐다. 오는 6월 기후와 자원 등을 주제로 한 제5차 광주폴리가 완공되면 다채로운 문화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폴리를 모티브로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0여 회 진행되는 '광주폴리 랑도네'가 그것. 프랑스어로 오래 걷는 '긴 나들이', '긴 산책'을 의미하는 '랑도네'를 통해 동명동 일대 광주폴리 둘레길을 걸으며 폴리와 가까워지자는 취지다.

참여자들은 거점인 '숨쉬는 폴리'를 출발해 동명동 일대 10여 개 건축조형물을 들르게 된다. 둘레길을 걸으며 제5차 주제인 '순환폴리'와 연관된 기후, 자원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희망지는 광주폴리 웹사이트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성인은 60분, 90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어린이 부분(60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 방법을 돕는 내용으로 짜여진다.



'숨 쉬는 폴리'

걷기는 1, 2차로 나누어 운영되며 1차는 4-5월(매주 금, 토요일), 2차는 5차 광주폴리 완공 이후인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 박양우 대표 이사는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환원한 푸른길 공원과 문화 상징성을 내재한 광주폴리의 결합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폴리 둘레길 걷기를 매개로 폴리와 가까워지자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캠프파이어애니웍스,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 제작 공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물레 육지로 향했다가 바다왕국의 보석 '버블잼'을 깨뜨린 인어공주 퍼플. 여왕 '화이트 골드'는 형형 색색의 일곱 인어공주들에게 육지 학교에 통학하며 흩어진 버블잼을 모두 모아올 것을 명령한다. 말괄량이 인어공주들은 육지 생활에 잘 적응하며 버블잼을 모아올 수 있을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캠프파이어애니웍스가 제작한 가족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흩어진 버블잼을 찾아라!'를 선보인다.

4월 20-21일 서울시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공연의 첫 포문을 열며, 오는 4월 27-

28일에는 서울시 구로아트밸리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흩어진 버블잼을 찾아라!'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일곱 인어공주의 모험 이야기로,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며 버블잼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캠프파이어애니웍스는 광주시 소재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아가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CJ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리즈A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네이버 예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봄날, 동네책방에서 열리는 시 낭독회

정우영 시인, '순한 먼지들의 책방' 모티브... 23일 기억책방

일설 출신 정우영(사진) 시인은 올해로 등단 35년을 맞은 시인이다. 그는 그동안 '시는 삶'이라는 믿음을 견지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정 시인의 최근 발간 시집 '순한 먼지들의 책방' (장비)을 모티브로 한 시 낭독회가 열린다. 오는 23일 오후 4시 기억책방이며 선착순 20명.

특히 낭독회가 열리는 기억책방은 시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시집 표제시 '순한 먼지들의 책방'은 2년 전 동네책방을 연 후배에게 보낸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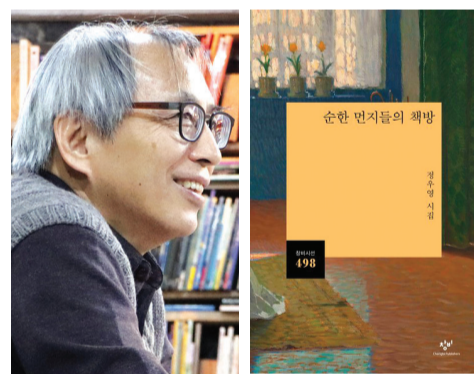
낭독회는 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참가자들이 소리를 내 시를 읽는 시간이며 2부 '시인과 대화'에서는 이번 시집과 관련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다. 공연은 소설가이자 음유 시인 채정이 펼친다.

이번 시집은 작은 것들에 대한 애정, 그것을 통해 정감어린 풍경들을 환기한다.

"저이는 어찌 저리 환할까 기우거리다가, 드디어 비결을 찾았어요. 날마다 맑은 햇살 푸지게 담아 드시더군요. 설거지한 그릇 넘어 바짝 말리고는, 마당 그득히 쏟아지는 햇살 듬뿍들 꼭 받는 거예요./ 햅쌀보다 맛나고 다디단 햇살들요./ 봄에는 봄 햇살, 여름에는 여름 햇살, 가을 겨울에는 갈겨울 햇살, 그릇에 넘치겠지요..."

위 시 '햇살밥'은 '햇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특유의 환한 기운을 선사한다. 화자는 햇살을 푸지게 먹고, 그릇을 햇살에 말리는 '저이'의 모습이 마냥 좋다. 그러면서 매 계절마다



그릇 가득 넘치는 햇살 같은 삶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정우영 시인은 1989년 '민중시'에 시를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다른 것들은 제 속으로 쫓는다', '집이 떠나갔다', '살구꽃 그림자' 등을 펴냈다.

한편 기억책방 송기영 대표는 "이번 행사는 독립책방에서 열리는 봄날의 의미있는 시 낭독회"라며 "시와 노래, 이야기가 함께하는 감성 충전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